

사커브레이크 | 선덜랜드, K리그에 지동원 되팔고 싶어 하는 속사정은?

# “연봉 한푼도 더 지급하기 싫다” 지동원 전력외 선수 분류 쇼크

- 1 작년 데뷔후 계속된 벤치신세·지난달엔 부상 아웃
- 2 마틴오닐 감독 부임후 교체 출전 기회조차 사라져
- 3 구단, 필수 있는 팀 임대후 완전이적으로 팔 속셈
- 4 지동원 유럽 중소구단 원하지만 재정 능력 미지수

“지동원에게 더 이상 연봉을 한 푼도 지급하고 싶지 않다.” 지동원(21)의 소속 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AFC의 속마음이다. 지동원은 팀에서 전력 외 선수로 분류됐다. 선덜랜드 구단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선덜랜드 마가렛 번 단장은 측근에게 “지동원에게 더 이상 연봉을 한 푼도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게 구단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동원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지동원이 자리를 못 잡긴 했어도 팀 내 입지가 이렇게까지 좁아졌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선덜랜드는 지동원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임대 후 완전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K리그에 되팔고 싶어 한다. 선덜랜드가 영국 에이전트에게 K리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

## ●고난의 시간

지동원은 2011년 여름, 전남 드래곤즈에서 선덜랜드로 이적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350만 달러(당시 3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동원은 이적 첫째 9월 강팀 첼시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지만 이후 출전기회는 많이 없었다. 그해 12월 지동원을 영입했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고 마틴 오닐 감독이 새로 오며 교체 횡수마저 뜸해졌다. 지동원은 올 1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 한 번 결승골을 터뜨렸지만 반짝 활약이었다. 2012~2013시즌에도 시련은 계속됐다. 지동원은 8월 런던올림픽에서 영국과 8강전 선제골을 작렬하는 등 동메달 주역으로 떠올랐지만 이후 소속 팀에 복귀해서는 계속 벤치신세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달 초 허벅지 부상으로 3주 이상 쉬었다. 지동원은 올 시즌 1군 경기에 단 1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팀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

## ●임대 후 완전 이적될 듯

선덜랜드는 지동원을 데려오면서 이적료로 37억원을 썼다. 지동원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만큼 투자한 돈을 최대한 회수할 작정이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 지동원은 최근 1년 반 동안 경기를 거의 못 뛰었다. 기량을 보일 기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금을 주고 지동원을 데려갈 유럽 팀은 없다. 선덜랜드는 임대 후 완전 이적시키는 쪽으로 주판알을 빙기고 있다. 계임을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보내 지동원의 가치를 높여놓은 뒤 완전 이적으로 팔 심산이다. 최근 마틴 오닐 감독이 지동원의 임대를 사실상 허락한다는 뉴앙스를 풍기며 “출전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동원과 선덜랜드는 계약이 1년6개월 남았다. 6개월 단기임대 후 완전 이적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 ●유럽 잔류냐 K리그 복귀냐

선덜랜드와 지동원 모두 팀을 떠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린다. 지동원은 유럽의 중소 구단으로 가서 게임을 뛰고 싶어 한다. 최근 구자철이 임대로 활약 중인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와 협상하고 있다는 국내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선덜랜드는 다르다. 선덜랜드는 선 임대료로 100만 달러(10억원)는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우크스부르크와 같은 유럽 중소 구단이 낼 수 있는 임대료는 1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덜랜드는 K리그로 눈을 돌렸다. 지동원은 영국에 가기 전 K리그에서 1년 반을 뛰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유럽이적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동원은 유럽 리그에서 보여준 게 거의 없다. 선덜랜드가 원하는 임대료를 맞춰 줄 수 있는 유럽 구단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반면, K리그는 지동원의 가치를 잘 안다. 6개월 임대 후 완전 이적하는 조건이라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렇다 해도 변수가 많다. 전남은 지동원을 선덜랜드로 보내며 K리그로 돌아올 경우 우선협상권을 갖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선덜랜드는 일단 전남과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전남과 결별되면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K리그 구단들이 경기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지동원에게 100만 달러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지도 미지수다. 또한 지동원이 K리그 유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동원 측근은 “몇몇 유럽 구단에서 지동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복귀에 앞서 일단 유럽의 다른 팀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순위다”고 말했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선덜랜드 지동원(맨 왼쪽)에게 올 겨울은 스산하다. 잉글랜드 진출 이후 거의 보여준 게 없는 그는 거취를 놓고 고심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특히 K리그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선덜랜드(영국) | AP연방뉴스

## 또 챔프 울산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클럽월드컵 결전지 나고야로 출국 몬테레이 깨면 첼시와 결승행 다름 상대 경기영상 분석 등 만반의 준비

‘아시아 최강’ 울산 현대가 2012 국제 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을 꿈꾼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포함된 울산 본진이 5일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했다. 9일 나고야 인근의 도요타스타디움에서 열린 몬테레이(멕시코)와 대회 1차전을 이기면 13일 요코하마로 이동해 첼시(잉글랜드)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겨룬다.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꿈의 대결’이다.

결전의 준비도 끝났다. 몬테레이에 대한 전력 분석은 일찌감치 완료했다. 몬테레이의 멕시코 프로축구 2경기 영상 자료를 편집해 틸팀이 선수들에게 보여줬고, 요점을 정리한 분석 자료를 배포했다.

울산은 올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무패(10승2무) 우승을 하는 동안 ‘분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했다. 멕시코 현지를 직접



김호곤 감독

방문했던 김상훈 코치의 생생한 관련기 역시 큰 도움이 됐다. 숙소에서 훈련장,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계속 영상을 선수들에게 보여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도록 했다. 몬테레이 선수들의 움직임과 전술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다. 분위기도 최상이다. 울산은 출국 전날(4일) 김호곤 감독과 계약 연장에 합의해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감독과 구단 양 측은 최종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팀의 리빌딩을 위해 2년 이상 계약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 구단은 나고야에서 김해로 귀국하는 항공편 외에 대회 4강전과 결승(또는 3위 결정전)이 열린 요코하마에서 가까운 도쿄에서 돌아오는 비행편까지 좌석을 확보했다. 그 만큼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 김 감독은 “K리그와 한국 축구를 대표해 세계 속에서 멋지게 경쟁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김인완 대전 새감독 “반드시 살아남겠다”

취임 회견서 1부잔류 당찬 각오 “축구특별시 대전 부활에 최선을”

“반드시 살아남겠다.”

대전시티즌 신임 사령탑 김인완(41) 감독의 당찬 각오다.

김 감독은 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1부 리그 잔류와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겠다. K리그에서 대전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목표다.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2.5월(1,2부간 플레이오프 실시)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13위(13승11무20패)로 간신히 살아남았던 대전은 여전히 유력한 강등 후보다.

물론 김 감독도 이 점을 직시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사석에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계약기간은 별 의미 없다.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

실제로 대전은 김 감독과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도 누구보다 대전에 대한 애정이 크다. 광양제철중 감독(2006), 전남 2군 코치(2010), 부산 수석코치(2012) 등을 두루 거쳤지만 김 감독은 철저한 ‘대전 축구



대전 신임 사령탑 김인완 감독이 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전 | 연합뉴스

인’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그는 대전동중과 대전상고를 졸업했다. 대전 역시 작은 여름과 올해 2차레나 러브콜을 보냈다.

“살면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작년은 시즌 중이고, 부산에 대한 의의상 떠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도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를 두 번이나 받은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김 감독은 “책임감과 부담이 크다. 축구특별시 ‘대전’이 부활하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이란 각오로 대전에 왔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남정현 기자



## 2002 월드컵 4강 영웅들 ‘12·12 회동’

당시 선수·코치들 10년만에 한자리 만주 곁들이며 이야기보따리 풀 듯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 멤버들이 꼭 10년 만에 다시 뭉친다.

2002년 대표팀 코치였던 정해성 전 전남감독, 박항서 상주상무 감독을 비롯해 당시 선수였던 홍명보, 황선홍, 김태영, 최진철, 유상철 등 4강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모임 날짜도 기약하기 쉽다. 12월12일이다. 이른바 ‘12.12 회동.’ 함께 운동을 한 뒤 식사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 참이다. 연락책은 김태영 전 올림피아팀 수석코치다. 김 전 수석코치도 지금은 여전한 지도자지만 당시 멤버 구성을 보면 거의 막내 급이라 일을 맡았다.

2002한일월드컵 이후 K리그 울스타 전이나 축구협회 만찬 등 공식행사로 만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순수한 사

적 모임은 처음이다.

10년 세월 동안 멤버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운재와 김병지, 최은성, 김남일, 설기현, 박지성, 차두리 등은 아직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지만 홍명보와 황선홍, 최용수, 김태영 등은 지도자로 변신했다. 홍명보는 올림픽 팀 사령탑으로 런던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10년 만에 한국축구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었고, 황선홍은 포항 감독으로 올해 FFA컵 우승을 이끌었다. 최용수도 서울 사령탑 첫째 리그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국축구를 이끌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모임에서 단순히 과거 추억을 반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등 의미 있는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 포항, 26·27일 U-12세 팀 공개테스트

포항 스틸러스가 26~27일까지 포항제철동초등학교 인조구장에서 U-12세(포철동초)팀의 공개 테스트를 시행한다.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는 이번 테스트에는 포항 관내 초등학교 3~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만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선수는 축구화, 트레이닝복, 정장이 보호대, 개인용품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스틸러스 홈페이지와 구단 사무국 유소년 담당자(054-282-2073)에게 문의하면 된다.

### 부천 FC, 내년 프로 2부리그 참가

부천FC1995가 내년 프로 2부 리그에 참여한다.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5일 부천FC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챌린저스리그(3부)에 속해 있던 부천에는 2006년 부천SK가 제주도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7년 만에 프로 팀이 탄생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ydolove@donga.com 트위터@sd\_do02